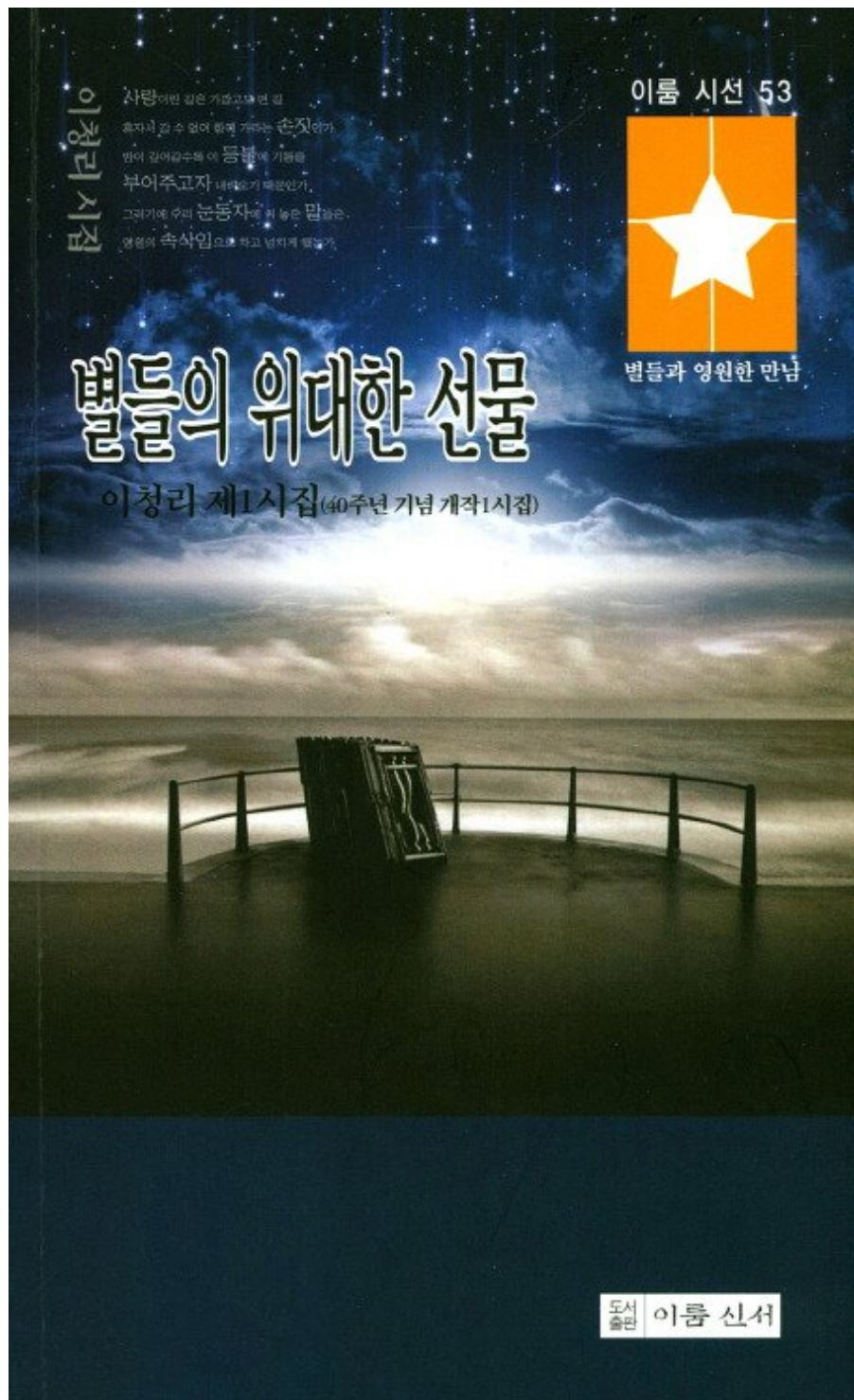


소개글

이청리 시인의 주옥같은 작품들

목차

1	이청리시집 별들의 위대한 선물 40주년기념개작
---	---------------------------



이청리 시집

세상엔 주어 바랄 수가 없었다
구제된 것이 참에 영자 소녀 참으로
알아 있을 때 두루가 짝어진 부를
생각과 두루가 불을 잊는 허공에
매달아 놓으니 말이다
자음이 치녀를 가운 속에
자음이 놓은 참꽃의 정원을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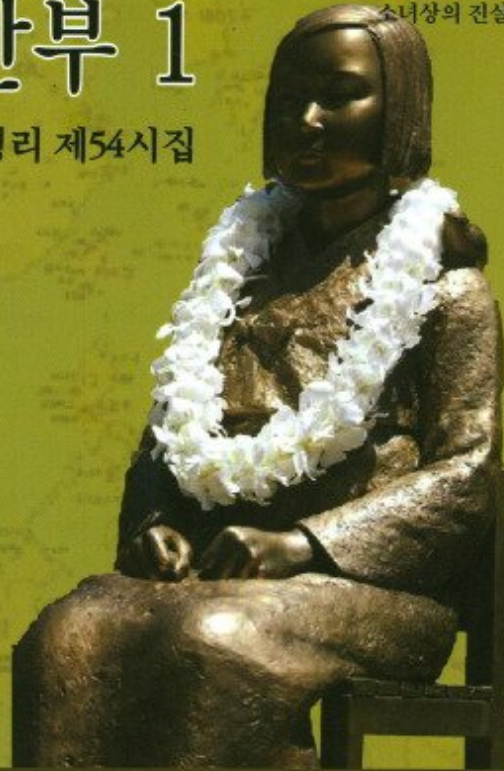
이름 시선 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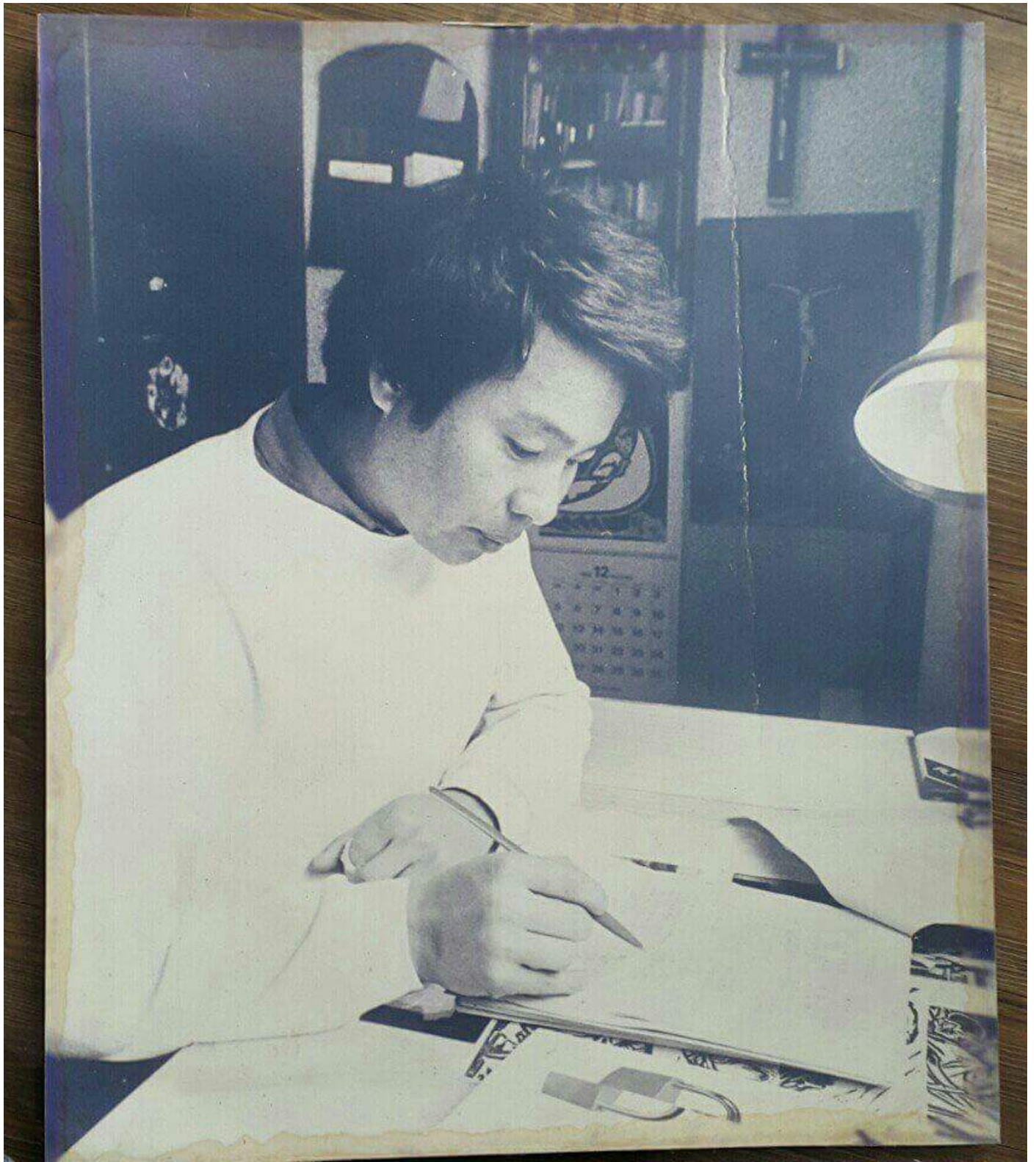
위안부 1

이청리 제54시집

소녀상의 진실이여



도서
출판 | 이름 신서



시인 이청리.40주년 기념 '별들의 위대한 선물' 시집 발간

한 작가가 일생을 투영해서 외길로 40년을 달려왔다는 것만으로도
웃음을 여미하거늘 처녀 시집을 다시금 개작이란 이름으로 탄생시킨 순간이야말로
새로운 화두를 던지는 일이 아닌가.

시! 한없이 고고하고
영혼의 교향곡이라 하지만
시대의 흐름 앞에서 주춤하는 순간에도
단 걸음도 멈춰서지 않는
이 정신은 무엇으로 답해야 할지 모르겠다.
대학 1학년 시절 ‘별들의 위대한 선물 “시집으로 등단한
이청리 시인은 여기까지 달려온 그 시간들은
이젠 하나의 역사의 한 줄기를 이룬 것을 본다.

40년 만에 서울대학 도서관에서 그 첫 시집을 맞이 했다는
그 감격과 기쁨을 유추해보면 그 동안 절취부심하면서
문학적인 성과는 눈부심자체이자
이청리 시세계는
이제 그만이 가진 독보적인 힘을 느껴진다.
누구도 쉬이 넘볼 수 없는
방대한 53권의 시집들마다 독특한 문체와
한 가지 주제로 완성시킨 시들은 다음 세대에 던지는 질문은 자고로 크다 할 수 밖에 없다.

이제까지도 변방문학인으로 머물러 있었지만
이청리 시인이 이뤄낸 성과는 상상을 초월한다.

40년 주년을 맞아 올해 이미 위안부1권이 출간되고 연이어
10권의 시집이 세상에 나온다는 것은 경이로운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어느 작가도 해낼 수 없는 작업을 묵묵해 수행하는 그 올곧음은
이 시대에게 보내는 위대한 선물이다.

첫시집이 나온 해가 1977년 10월 22일 현대문화사 간행으로 세상에 나온 것을
이청리 시인은 1978년으로 인지 했던 것을 후기에서 자세하게 소회를 밝혀 놓기도 했다.

더더욱 무등산은 문학의 산실이라 할 정도로 빛고을
광주로 완도 섬학생이 유학 와서 보낸 시절에서
1970년의 풍경이 생생하게 펼쳐져 있다.
외길로 40년을 길어온 문학의 길!
긴 고독과 싸움이요 누구도 눈여겨 관심을 표명을 하지 않아도
이 절대적인 사랑으로 세상에게 보내는 별들 I 의 위대한 선물은
우리가 너무 쉽게 받지 않나 싶다.

세상의 물결은 화려한 스팩이 주류를 이루고
인기와 명성이라는 이름으로 흘러가지만
이것을 뛰어 넘어 자신의 세계를 찾아
시 속에 몰입해 있는 이 시대의 숨은
순수낭만의 거목을 접할 수 있어 축복이 아닐 수 없다.

별들의 위대한 선물 이청리 1시집

블로그 시인 겸 서양화가 이청리 <http://blog.daum.net/hansrmoney>

저자 스타

발행일 2017.03.27 10:42:42

 블로그